<11월에 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과 아울러 너무나 쉽게 말하는 핵전쟁과 3차대전의 위협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1027연합기도회와 다니엘기도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라위의 환경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절실해집니다.

- 말라위 상황

지금까지의 말라위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일간이나 줄서서 겨우 30리터의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주유소마다 줄 선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오일파동과 식량위기등 3대위기가 동시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부터 겨우 센터까지만 15분거리를 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1월7일부터 9일까지 현지목회자 세미나도 기약없이 연기되었고 빌리지 방문사역도 기름을 구할 수 없어 당분간 보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이나 빨라진 우기시즌은 옥수수 농사를 준비하는 현지인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금년도에 오일파동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오일 파동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주유소직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리롱웨 타운에서만 3군데만 주유영업이 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준비하느라 국민들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일로 바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성행하고 Vandalism(공공기물파손행위)의 영향으로 릴롱웨 타운에서 16대의 변압기를 도둑질하고 파손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기와 물도 수시로 끊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3대위기가 안정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 전교인 작은 위로선물

아프리카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된 여정이지만 이들의 행복도는 단순하고 높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자동차 기름만 사도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질병과 배고픔과 살인물가 폭등에 휩싸여서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염소 몇 마리 잡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염소 한마리가 종전에는 3-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8-9만원씩 합니다. 온교인이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는 현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절로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비록 자주는 못하지만 기회만 되면 이런 날들을 자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 4개 스쿨사역

우리 LDM Light Discipleship Mission이 주로 하는 사역에는 어린이 유치원사역과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실 운영과 현지인 아주머니들을 위주로 하는 재봉교실과 그리고 목회자 및 Youth Ministry 그리고 평신도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역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분다 빌리지에 거주하는 현지인의 경우 거의 편도 두시간을 걸어오기 때문에 갈 때에는 항상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여 40-50명씩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훈련 및 컴퓨터사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와중에 일단 참석한 교육생들은 컴퓨터 스쿨 학생이든 재봉학교 학생이든 참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재봉학교 아주머니들은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 옷 만들어준다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한 본보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특별히 배울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학급이 시작전에는 말라위 애국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애국심을 길러 주고 있으며 스스로의 자긍심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 세 건의 장례식

일주일 사이에 세 건의 장례식 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평생을 코끼리질병을 가지고 살아온 아주머니인데 폭우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와 팔다리에 골절상을 당하여 결국에 목숨을 잃었고 또 한 건은 알콜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이고 오늘의 또 한 건은 2살배기 딸아이인데 빈혈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우리교회 성가대도 참여하였고 제자훈련도 참여한 분입니다. 어쨌든 말라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마음 아픈게 장례식입니다. 대부분은 토속방식으로 장례를 치루 는데 우리 교인이라 기독교 방식으로 우리 교회방식으로 장례를 집례하기로 하였습니다. 죽음보다도 장례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죽음은 마치 동네 일상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때에는 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센터안에서 일체의 일도 못하게 할 뿐 더러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특히 장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나쁜 문화가 서서히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 100채 집짓기 사역

말라위에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진짜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도 당시 이 새마을 운동의 공헌이 크다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말라위는 제가 말라위에 처음 올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는데 지금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당시만 해도 많이 나아 지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종전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공항을 통해 입국을 할때에는 하이에나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달려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한 해에 10-20채씩 집짓기 운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집을 짓는 운동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챠파다 빌리지 10채와 분다 10채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리더들 부모집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기도하던 중에 이리남중교회와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그때 그때 후원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집짓기 사역을 후원해 주신 교회와 개인 후원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께 영광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1월의 기도제목

1. 8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직업훈련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잘 수료하여 재봉교육을 통해 직업창출을 갖게 하옵소서
2. 새마을운동 집 짓기 사역100채 목표 중에 챠파다 마을 10채를 잘 마무리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나머지 10채 분다 사역도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였고 현재 리더쉽집짓기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3. 현재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많은 수리금액과 사역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있어 제자교육 및 옥수수배달에 필요한 차량구입(픽업트럭)을 허락하옵소서.

4.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랑기토니 소년의 눈적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부모집이 폐가상태로 현재 기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새집을 건축할 계획이오니 기도부탁드립니다.

5. 센터내의 모든 시설문제와 고장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라위 민경화/김홍희선교사드림